

교육실습 소감문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3월 20일, 처음으로 찾아간 교육실습 대상학교인 상계중학교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다시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자체 오리엔테이션과 각종 교육실습용 물품을 지급 받으며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감나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에 가서 교육실습생이라고는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간직한 채 주말휴일을 보내고 드디어 첫 출근을 했다. 우리 학교 포함 총 네 개 학교에서 실습을 와서 인원도 13명으로 많았는데 우연찮게 실습생 대표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였던 것 같다.

첫 주는 거의 대부분 각급 부장선생님들에 의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중학교에서 선생님이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이나 마음가짐, 정말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등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때까지는 선생님들을 통해 교육을 받기에 바쁘기도 하고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호기심에 의한 관심이 어색해서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교육실습에 대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내 2주차부터 본격적인 수업참관 및 수업진행에 들어갔다. 먼저 지도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후 곧바로 실제수업을 진행하였다. 참관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수업방법과 수업진행을 생각하면서 잘 할 수 있을리라 다짐하였지만 막상 첫 수업을 시작하니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더구나 아직 학생들과도 익숙해지지 않았고 지도교사가 참관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첫 수업을 진행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첫째날이 지나고 둘째날이 지나면서 점차 수업에도 익숙해지고 아이들과도 친근해지면서 점차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3주차부터는 학교생활 자체에 많이 익숙해지면서 다른 교과에 대한 수업 참관도 하고 다른 교생선생님들의 수업도 참관하면서 내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도 마련하고 한편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수업 방법을 보면서 배우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다. 무엇보다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담당하는 반뿐만 아니라 내가 수업을 들어가는 모든 반의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실습 초반의 긴장감이 점차 기분 좋은 흥분으로 바뀌며 매일매일이 즐거워졌다.

그러나 그렇게 실습 초반 더디게만 지나갔던 시간도 흘러서 어느새 4주차가 되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학교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특히 많은 정이 쌓이면서 점차 아쉽고 더 잘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아팠다. 마지막 날은 아이들의 선물을 받고 나도 아이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선물하면서 교육실습을 마무리하였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마도 비공식적인 첫 제자였던 상계중학교 1학년 7반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꼭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다.